



가팔라진 '인구 절벽' 전남 인구 180만 붕괴

전남지역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인구 180만명선이 결국 무너졌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가 각종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17년 인구 190만명 붕괴 이후 7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180만명까지 지켜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남 주민등록 인구는 2월 (180만352명)보다 2천320명 감소한 179만8천435명(남성 90만6천995명, 여성 89만1천44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연도별 전남 인구 현황

연도	인구
1985년	3,748,428명
1990년	2,507,439명
1992년	2,283,108명
1995년	2,185,564명
2000년	2,130,614명
2004년	1,986,192명
2010년	1,918,485명
2015년	1,908,996명
2017년	1,896,424명
2020년	1,851,549명
2024년 3월	1,798,435명

3월 전남 인구는 7천270명(출생 642명, 타 시·도 전입 6천564명, 등록·기타 64명)이 증가한 반면, 9천187명(사망 1천717명, 타 시·도 전출 7천448명, 말소·기타 22명)이 감소했다. 감소 인구의 대

부분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당시 광주직할시)가 전남도에서 분리(1986년)되기 직전인 1985년 전남 인구는 374만8천428명에 달했지만, 1986년 분리 이후 전남 인구는 급속

3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집계 '179만8천435명'

2017년 190만 무너진 이후 7년만에 10만명 '뚝'

'백약이 무효' 상황...인구 감소 특단 대책 절실

다수가 타 지역 전출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전남 인구(181만3천872명)와 비교할 때 1년 사이에 1만5천620명이 빠져 나갔다.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13만9천14명(63.3%)으로 2월 대비 2천754명 줄어들었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18만4천92명(2월 대비 759명 감소)으로 10.3%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7만4천469명(2월 대비 1천596명 증가)으로 26.4%에 달했다.

3월 인구 집계에서 2개 시·군 중 인구 증가한 곳은 신안군(93명) 1곳 뿐이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17년엔 190만명 선마저 붕괴됐다. 200만명에서 190만명까지는 13년, 190만명에서 180만명 붕괴까지는 7년이 소요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도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분리 이후 주요 연도별 전남 인구는 1990년 250만7천439명, 1995년 218만5천564명, 2000년 213만614명, 2004년 198만6천192명, 2010년 191만8천485명, 2015년 190만8천996명, 2017년 189만6천424명, 2020년 185만1천549명, 2024년 3월 179만8천435명으로 제동 장치 없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은 정부가 2021년 최초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인구감소 둔화를 위해 출생수당 신설, 돌봄체계 구축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청년정책 강화와 외국인 맞춤형 정책, 이민전 전남 유치,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尹 '2천명' 강조 vs 교수 줄사표...출구 '깜깜'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 28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지역 의료 공백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남대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 400여명(병원 임상교수·해외연수자 포함) 중 220여명(55%)이 사직서를 냈다.

전대 220여명·조대 69명 사직...“주 52시간 근무 돌입”

지역 의료공백 심화...환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울분

전남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주 52시간 근무 준법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을 지켜보며 향후 회의 일정 등을

결정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의대의 경우 교수 161명 중 69명(4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의대 교수비대위는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여부 등 향후 행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김다이기자



검사 대기하는 환자 전국대의교수비상대책위원회 근무조건 의결에 맞춰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조정·줄이기로 한 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내원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에리기자

광주·전남 유권자 276만3천949명

총선 D-8

투표소 광주 358곳·전남 806곳 설치

4·10 총선에서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광주·전남 유권자 수는 광주 119만9천666명, 전남 156만4천283

명 등 총 276만3천949명인 것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4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명부는 3월19일 기준 구·시·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됐다.

3월2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4·10 총선 투표소도 광주 358곳, 전남 806곳 등 광주·전남에서 총 1천164곳을 확정했다. 투표소는 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됐다.

선관위는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고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거소투표 신고자들에게도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 /김진수기자

Today

- 현재, 중대재해법 위헌여부기린다 12면
- 광주문인협회 문화마당 15면
- KIA, 주중 k와 3연전 승수쌓기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